

서울-수원 12일 슈퍼매치, 이번엔 공격 축구다

몰리나 부활 천군만마, 산토스 득점 살아나
양팀 주전골키퍼 김용대 부상, 정성룡 휴식



〈15R 관전포인트〉

K리그 클래식(1부리그) 최고의 라이벌전 FC서울-수원삼성의 '슈퍼매치'가 12일 오후 7시 서울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다. 4월 27일 벌어졌던 시즌 첫 맞대결에선 서울이 적지에서 1-0으로 승리한 바 있다. 두 팀 모두 월드컵 휴식기 동안 전력을 재 정비했다. 수원은 9일 외국인선수들의 활약 속에 울산현대를 3-2로 꺾는 등 한층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다. 서울은 같은 날 포항과 0-0으로 비겼지만, 몰리나의 합류로 공격력이 전반기보다는 향상됐다. 수원과 서울 모두 4월 첫 대결 때보다 나아진 경기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골 폭발 가능할까?

전반기 슈퍼매치는 경기 내용에선 나쁘지 않았지만, 한 골밖에 터지지 않아 아쉬웠다. 올해뿐 아니라 최근 들어 슈퍼매치에선 많은 골이 나지 않는다. 라이벌전에서 패했을 경우 후유증이 적지 않아 두 팀 모두 조심스럽게 경기를 운영한 탓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골 퍼레이드를 기대해볼 만하다. 수원은 9일 울산을 맞아 3골을 터트렸다.

외국인선수 산토스와 로제가 득점했다. 전반기에 부진했던 용병들이 살아나 12일 서울전에서도 맹활약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은 몰리나의 가세가 천군만마나 다름없다. 득점뿐 아니라 골 찬스를 만들어주는 능력도 탁월한 선수다. 서울 최용수 감독은 10일 "공격에서 좀더 과감한 플레이가 나온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득점이 가능하다. 월드컵 직후 한국축구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서울과 수원이 많은 골로 좋은 경기를 펼쳐 부활의 신호탄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슈퍼매치도 골키퍼가 변수!

2014브라질월드컵에서 골키퍼들의 활약이 승

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처럼 슈퍼매치에서도 수문장들의 선방 여부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과 수원 모두 이번 슈퍼매치에 주전 골키퍼를 내세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김용대는 5일 전남전에서 부상을 입어 2주간 쉬어야 한다. 수원 주전 골키퍼 정성룡은 월드컵 후유증으로 휴식 중이다. 서울 유상훈과 수원 노동건이 후반기 들어 주전 골키퍼들의 공백을 잘 메우고 있어 이번 슈퍼매치에도 선발 출전이 유력하다. 유상훈은 10일 "월드컵을 통해 골키퍼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고, 개인적으로는 많은 결배울 수 있었다. 지난해 슈퍼매치에 출전한 적이 있는데 긴장이 많이 됐다. 더 철저히 준비하고

나갈 생각이다"고 밝혔다.

●15라운드도 또 다른 빅매치들

슈퍼매치가 열리는 12일 울산과 포항이 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격돌한다. 울산은 이날 경기에 장신 스트라이커 김신욱(196cm)을 투입할 계획이다. 브라질월드컵 조별리그 벨기에와의 3차전 도중 발목 부상을 입은 김신욱은 최근까지 재활을 견뎌 휴식을 취했다. 포항과 치열한 선두다툼을 벌이고 있는 전북은 13일 창원축구센터에서 경남과 원정경기를 치른다. 포항이 만만치 않은 울산에 상대하기 때문에 전북은 경남전에서 승리하면 1위 탈환도 가능하다. 최용성 기자 gtyong@donga.com 트위터@gtyong11



리오넬 메시(왼쪽 끝)를 비롯한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10일(한국시간) 아레나 데 삼파울루에서 벌어진 네덜란드와의 4강전 승부차기에서 승리가 확정되자, 일제히 뛰어가며 함성을 지르고 있다.

삼파울루(브라질) | AP뉴시스

리더의 조건은 강한 원칙과 부드러운 신념

사커 & 사이언스

카리스마 리더십에서 확장된 '변혁적 리더십' 주목
동기부여·지적자극·적절한 보상 추구하는 역할로

흑백 인종갈등이 한창이던 1971년 미국 버지니아주 지역 교육청에선 흑인고교와 백인고교를 통합하라는 지시를 알렉산드리아 TC 윌리엄스 고교에 내린다. 이에 따라 백인들만 구성된 윌리엄스 고교 미식축구팀 타이탄에 흑인선수가 전학을 오면서 팀 내 갈등이 고조된다. 불신과 불만, 인종에 대한 교육적 언행이 넘쳐나는 팀 분위기는 지역사회를 분열시키는 단계로 비화된다. 이에 워싱턴 정부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출신 흑인 허먼 분을 타이탄의 헤드코치로 임명하고, 그가 전임 백인 헤드코치 빌 요스트를 자기 밑의 코치로 두려고 하자 윌리엄스 고교와 지역사회의 갈등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달는다.

그러나 분은 때론 진정성 있는 행동과 때론 강인한 추진력으로 선수들을 통합해 갈등을 봉합한다. 분은 요스트와 함께 팀의 공동목표를 부여하고, 선수 각자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독려한다. 불성실한 태도로 경기에 임한 핵심 주전선수를 교체하는 것에 반대한 관원자들에게는 "선수들의 아래팔을 받아주는 건 절대 그들을 돕는 게 아니다. 불구로 만드는 것"이라며 원칙을 관철시킨다. 그 같은 리더십은 타이탄을 고교 최강의 팀으로 변모시키고, 나아가 사회·문화적 통합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연결고리로 탈바꿈시킨다. 영화 '리멤버 타이탄'은 이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효율적이고 위대한 리더십은 조직구성원이 공유할 목표를 체계적이고 구체화함으로써, 팀원들이 팀이 보유한 목표와 팀에 부여된 사회적 기여에 집중하게 만든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리더십의 새로운 관점으로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이 주목받고 있다. 초기 카리스마 리더십에서 확장된 변혁적 리더십은 팀 내 구성원들의 감정을 아우르는 동기부여와 지적자극, 개개인의 특성을 배려한 차별적 대우와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추구하는 거래적 행동이 융합된 새로운 리더십이론이다.

변혁적 리더십은 권력을 휘두르거나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에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동기를 자극하는 과정이며, 리더가 구성원들과 함께 양자 모두의 동기유발과 도덕수준을 높이는 연결관계를 창조해가는 과정으로 설명된다. 이에 입각한 성공적 리더는 구성원들이 지닌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유사장치를 활용하고, 이 같은 팀 내 효율성이 실제 성공적 결과로 귀결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2014브라질월드컵에서 우리 축구대표팀이 보여준 모습은



영화 '리멤버 타이탄'

어쩌면 초기 윌리엄스 고교 미식축구팀 타이탄과 유사하다. 원칙이 결여된 이른바 '의리축구'에서 비롯된 논란과 일부 포지션에서 드러난 경기력 저하는 국가대표라는 상징성에 주목하는 국민의 열망과 아우러져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다. 흥명보 감독은 타이탄의 헤드코치 분처럼 승리를 통해 위기에서 벗어나려 했을 것이다. 경기력이 떨어진 일부 선수를 믿으면서, 리더로서 그들에게 신뢰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

그러나 그 같은 행동들이 팀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 요인과 팀 내 구성원들에게도 호응 받지 못한다면, 리더는 과감히 신념을 버리고 원칙을 택해야 한다. 스포츠심리학자 레이너 마텐스(Rainer Martens)는 저서 '성공적 지도(Successful coaching)'에서 성공적 리더는 '강력한 원칙과 부드러운 신념에 기초한다'고 설명한다. 미식축구나 축구처럼 선수들의 관계적 역동성이 팀의 잠재적 힘으로 귀결되는 종목에선 리더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팀 전력은 극대화된다.

이를 위해선 팀 선수들의 노력으로 나타나는 성과와 성과로 나타나는 개인적 혜택을 구체적으로 부여하고, 경기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구성원들이 지닌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경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동시에 리더로서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브라질월드컵에서 시련을 경험했다. 지금의 상황이 대한민국의 사기 저하와 사회적 논란을 낳더라도, 이 같은 시련과 논란은 리더의 역할과 책임감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브라질월드컵에선 실패를 맞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승부를 위해 강한 원칙과 부드러운 신념을 갖춘 리더의 등장을 기대해본다.

박상혁 박사 한국스포츠개발원(KISS) 연구원

스포츠동아·한국스포츠개발원 공동기획

독일 우승하면 1인당 4억원

준우승해도 선수에게 2억원씩 보너스 지급

독일 선수들은 2014브라질월드컵에서 우승하면 두둑한 보너스를 받는다.

독일 DPA통신은 10일(한국시간) 독일축구협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독일축구협회가 월드컵 우승 시 선수 1인당 30만유로(약 4억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독일은 9일 벨루오리존치에서 벌어진 브라질과의 준결승에서 7-1로 대승해 결승에 올랐다.

독일은 이미 준우승국에 주어지는 상금 2500만달러(약 252억원)를 확보한 상태다. 국제축구연맹(IFIFA)은 이번 대회에 참가한 32개국에 150만달러(약 15억원)의 참가수당을

지급했다. 우승국에는 3500만달러(약 354억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독일 언론 빌트에 따르면, 독일축구협회는 프랑스와의 8강전에서 승리한 직후 월드컵 수당과 관계없이 선수단에 230만유로(약 13억7000만원)의 보너스를 이미 풀었다. 독일축구협회는 우승 시 30만유로의 보너스와 더불어 준우승에 그치더라도 선수 1인당 15만유로(약 2억원)의 보너스를 줄 계획이다. 독일축구협회는 2008유럽선수권대회 준우승 때도 선수단에 총 690만유로(약 94억7000만원)를 지급한 바 있다. 이는 독일축구협회 역사상 최고액이었다.

독일 선수들은 이번 대회 우승 시 2008년 유럽선수권 준우승 보너스를 훌쩍 넘기는 목돈을 거머쥐게 된다. 독일 선수들에게는 우승해야만 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동기부여가 생길 셈이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트위터@stopwook15



14일부터 FC서울-레버쿠젠 입장권 온라인 판매

30일 오후 7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K리그 클래식 FC서울과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의 친선경기 'LG전자 초청 바이엘 04 레버쿠젠 한국 투어 2014' 입장권의 온라인 판매가 14일 오전 11시부터 인터파크(www.interpark.com)에서 진행된다. 가격은 R석 5만원, 1등석 3만원, 지정석 2만원, 자유석 1만5000원(성인 기준). 이번 친선경기를 주최하는 LG전자는 판매권 입장권 1매당 1000원씩을 적립해 여자축구와 유소년축구 발전을 위해 기부한다. 레버쿠젠은 '월드컵 스타' 손흥민(사진)과 유망주 류승우의 소속팀이다.

12일 슈퍼세일... FC서울 선수단 의류 최대 60% 할인

FC서울은 1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수원삼성의 슈퍼매치에서 인기상품들을 대폭 할인 판매하는 '슈퍼세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많은 인기를 누렸던 2013년 선수단 의류를 최대 60% 저렴한 가격에 판다.

배아픈 삼바팬, 아르헨에 야유

결승 좌절 브라질 축구협회 청문회도 추진 계획

2014브라질월드컵은 브라질인들에게 '악몽'으로 기억될 것인가?

브라질은 9일(한국시간) 독일과의 준결승에서 1-7의 치욕적인 패배로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안방에서 당한 대패였기에 브라질 국민이 겪은 충격은 배가됐다. 그러나 독일전 참패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브라질에 또 한 번의 '비보'가 전해졌다. 10일 아르헨티나가 승부차기 끝에 네덜란드를 꺾고 24년 만에 결승 진출에 성공한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브라질과 함께 남미 축구를 대표하는 강호이자, '삼바군단'의 영원한 라이벌이다. 이번 월드컵 기간 동안 아르헨티나의 경기를 관전하던 브라질 팬들은 야유를 멈추지 않았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간판스타 리오넬 메시(FC 바르셀로나)가 공을 잡을 때면 야유의 강도가 더욱 세졌다. 10일 아르헨티나-네덜란드의 준결승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브라질의 월드컵 결승 진출이 좌절된 뒤에 벌어진 경기라 아르헨티나와 메시지를 향한 야유는 더욱 강했다.

독일에 대패를 당한 브라질은 네덜란드가 아르헨티나를 꺾고 결승에 오르기를 바랐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아르헨티나가 네덜란드를 꺾는 순간 경기가 열린 아레나 데 삼파울루 인근에선 총성이 울리기도 했다. 또 아르헨티나 스포츠지 올레의 취재기자가 강도가 탑승한 도난 차량과 충돌해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브라질 당국은 자국 축구협회에 독일전 대패와 결승 진출 무산에 따른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브라질의회는 축구협회에 대한 청문회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욱 기자

편집 | 정용문 기자 sadzoo@donga.com 트위터@sadzoo